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의료 유비쿼터스 지향

글 정윤희 편집장 unigood@paran.com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1956년 초대교구장 원아드리انو 주교가 개원한 희망병원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성모병원으로 인가를 받아 1969년에 대전성모병원으로 개원했고,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현재 8개의 가톨릭의료원 중 하나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560병상 규모이며, 8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보지원팀 구성

대전성모병원의 IT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정보지원센터이다. 정보지원센터는 의료정보팀과 전산부의 정보지원팀으로 구분되며, 실질적으로 IT는 정보지원팀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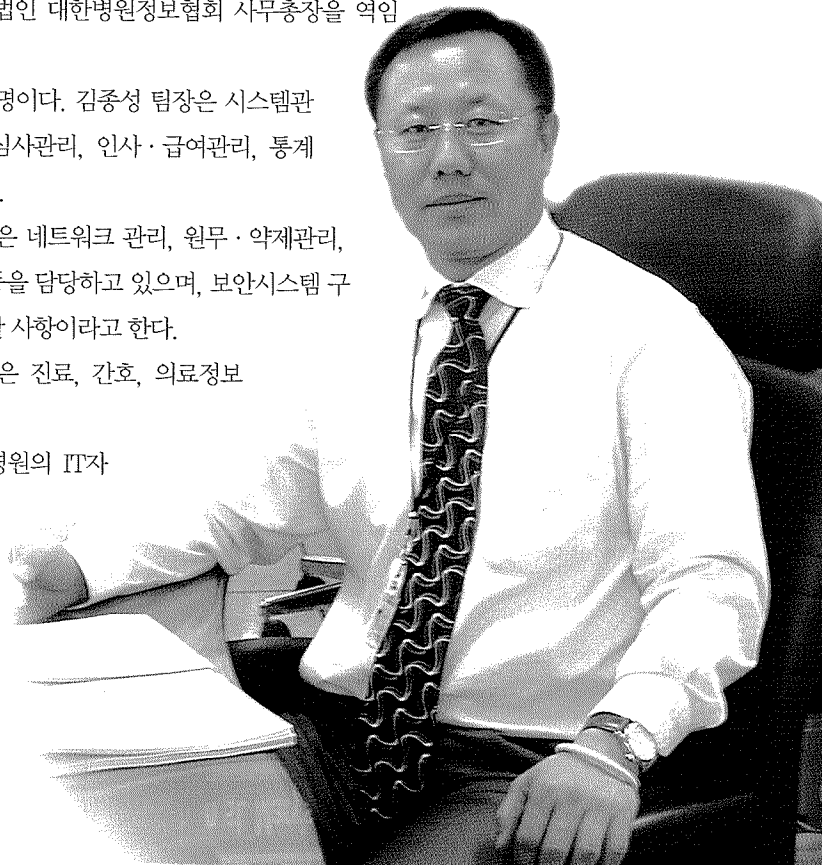
정보지원팀을 책임지고 있는 오재우 부장은 대전성모병원의 종합의료정보시스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오재우 부장은 관동대학교 명지병원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대전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병원정보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정보지원팀은 총 6명이다. 김종성 팀장은 시스템관리, DB운영, 보험·심사관리, 인사·급여관리, 통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김태준 정보파트장은 네트워크 관리, 원무·약제관리, 그룹웨어, 종합건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안시스템 구축이 올해 중점 추진할 사항이라고 한다.

김대수 개발파트장은 진료, 간호, 의료정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광영 선생님은 병원의 IT자원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찾아가



오재우 전산부장은

(사)대한병원정보협회 사무총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래 왼쪽부터 오재우 부장, 김대수 개발파트장, 윗줄 왼쪽부터 이광영 선생님, 정진원 선생님, 김종성 팀장, 김태준 정보파트장

는 서비스를 하는 이광영 선생님은 출근하면 각 부서를 돌아보며 문제발생을 체크하고 서비스해 준다.

끝으로 정진원 선생님은 'I'm possible' 을 모토로 정보지원팀에 들어온 신입사원이다.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중

대전성모병원에서는 종합의료정보시스템 발전을 위해 3단계 추진일정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1단계 과정 중에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병원, 현업, 사용자, IT담당자, 정보기반 등 네 가지 관점에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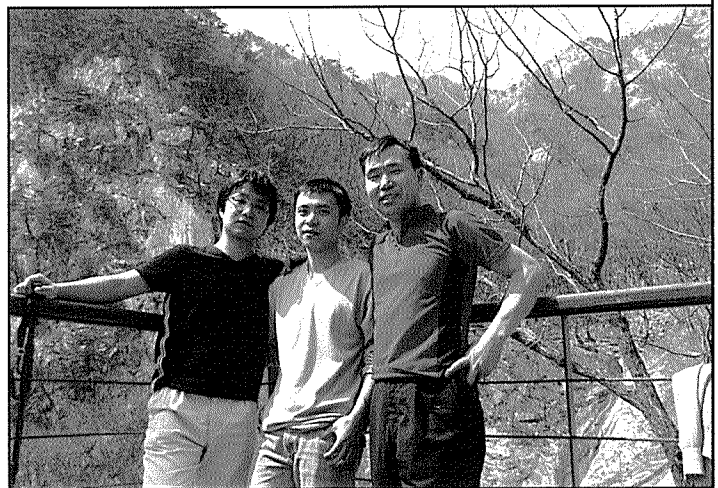
대전성모병원에서의 의료정보시스템 시작은 1995년 원무 및 보험 시스템과 경영정보시스템이다. 이후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구축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현재 운영중인 의료정보시스템 중 보완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OCS 업무의 경우 이원화된 관리 구조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OCS Migration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보안체계가 미약하여 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1단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에 대해서 오재우 부장은 몇 가지를 설명했다.

“첫째,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처방전달시스템) 운영의 기능향상입니다. OCS 기능향상은 곧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로 가기 위한 과정이며,

이를 위해 현업부서와 정보지원센터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병원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분석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보지원센터 인력 양성입니다. 특히 의료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IT지식 보다는 분석지식이 필요합니다. 정보지원팀 평균 근무년수는 5년~10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술은 보유할 수 있으나 심도있는 요소기술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OCS Migration, 통합DB구축, LIS 구축, 보안정책 수립, 의무기록영상시스템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전성모병원에서는 성공적인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자문위원회 아래 표준화위원회, OCS 위원회, EMR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위원회마다 실무TFT와 개발팀이 있다.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추진에 대해 오재우 부장은 “올해는 기반을 구축하고 확산준비 시기이고, 정보화 확산과 정보활용 단계를 거쳐, 장기비전인 의료 유비쿼터스를 구축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Users